

비 오면 안보이는 ‘불량 차선’ 이유 있었다

원청업체 ‘하청 장사’에 저가 도로 사용 ‘안전 위협’ 수수료 40% 떼여 실제 공사비의 60%로 부실 시공 광주 북부경찰, 도색업체 대표·공무원 등 19명 적발

밤이면 보이지 않고, 비가 내리면 사라지는 불량차선들의 원인이 차선도색 업체의 부실시공과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기관으로부터 차선공사를 받은 원청업체가 고액의 수수료만 챙기고 불법으로 사업을 다른 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하청장사’가 업계에 ‘관행’처럼 퍼져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부실 시공을 도왔다.

광주 북부경찰은 15일 저가의 자재를 사용해 차선도색 공사를 부실하게 한 하도급 도장공사업체 대표 문모(54)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문씨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맡긴 김모(59)씨 등 13개 업체 대표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이모(33)씨 등 5개 지자체와 기관 공무원 5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청을 비롯해 광주와 전남·북 지역 5개 지자체와 기관에서 낙찰받은 17개(11억6000만원 상당)의 차선도색 공사를 부실하게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발주처의 승인도 없이 김씨 등 13개 원청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하도급 공

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원청업체는 전체 공사 금액의 40%가량을 수수료로 명목으로 받고, 하도급을 받은 문씨는 실제 공사비의 60%만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실제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는 공사비 부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만회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 부실공사를 강행했다. 문씨는 지급받은 관급자재의 일부를 빼돌리거나 특수 도로에 일반 도로를 섞어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빛 반사율이 높은 ‘고휘도 유리아’ (유리 가루) 대신 저가의 일반 유리아를 혼합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이 운영하는 원청업체들은 대부분 아파트 외벽도장 업체로 ‘도장공사업’ 관련 면허만 있고, 도장 기기 등 장비와 인력, 기술 등이 없어 차선도색 공사를 낙찰받더라도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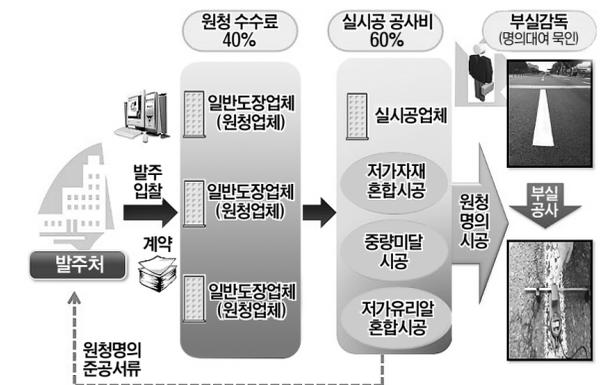
실제 업계에서는 ‘하청장사’가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를 받은 업체가 장비 임대라는 명목으로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인데, 조사를 하다 보니 자신들도 이 같은 사실이 불법이고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관행처럼 그래왔다”는 게 이번엔 적발된 업체들의 설명이었다고 말했다.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방계약법 상 전문건설



저가의 자재를 사용해 부실 시공한 차선은 타이어에 금세 마모돼 벗겨지고, 밤이면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북부경찰 제공>



업 공사의 경우 1억원 이상만 적격 심사를 하기 때문에 수천만원대의 차선도색 공사는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도장공사업 면허를 가진 광주지역 전문건설업체는 70여곳에 이른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北특수군’ 지목된 5·18 시민군들 황당 주장 지만원씨 직접 고소기로

“5·18 헛뜯기 터는 못참아” 박남선씨 등 5~6명 참여

5·18 민주화운동을 깎아내리고 북한군이 80년 광주에 투입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는 극우 논객 지만원씨(73)를 당시 시민군들이 직접 나서 고소하기로 했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 등은 80년 5·18 당시 시민군을 북한이 보낸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고소인으로는 지씨가 이른바 ‘광수’(북한에서 내려와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라고 가리킨 80년 당시 전남도청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5~6명의 시민군이 직접 참여한다.

지씨는 그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박남선씨를 ‘광수 71호·황장갑’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두환이 이끈 신군부 세력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나선 시민군들을 끊임

없이 헛뜯고 깎아내렸다. 기념재단 등은 고소인단에 참여할 인사를 이날 확정된 뒤 오는 19일께 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념재단과 광주시 등은 지난 7월부터 ‘5·18 왜곡대응 설명회’를 통해 지씨에 의해 광주로 지목받은 시민군 6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기념재단은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호의를 발행해 서울 대학가와 광주·대구·경남 등에 배포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에 대해 추가 고소 여부도 검토 중이다. 범인은 지난달 25일 5·18 단체들이 뉴스타운을 상대로 낸 호의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스타운의 호의 1, 2, 3호 발행과 배포, 호의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뉴스타운의 보도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사회적 평가를 헛뜯고 참가자에 대한 비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발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력·유통기한 표시안된 쇠고기 유통

젓소·우족 등 4t 보관

남부경찰, 50대 입건

광주남부경찰은 15일 종류나 유통기한 등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를 보관 및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박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광주시 서구 매월동의 한 야산 비닐하우스 안에 대형 냉동고 2대를 설치해 놓고 이력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4t가

량의 젓소 살코기, 우족, 사각 뼈 등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살코기 등을 1.5t당 300만원을 받고 2차레 수도권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적발 당시 냉동고에 남아있던 고기 일부는 2년 이상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유통기한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냉동고에 보관된 살코기 등의 수질 및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섹스가 뒤길래... 성매매 암시 글에 3억여원 날린 559명



○...인터넷상에 이른바 ‘조건 만남 사이트’를 만든 뒤 ‘성매매 여성’을 금방이라도 보내줄 것처럼 속여 남성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철창행. ○...15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모(22)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인터넷에 성매매 암시 사이트를 만들어 559명으로부터 3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보고 남성들이 연락을 해오면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한 뒤 단번에 가로챘다”며 “피해 남성들이 환부를 요구하면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많게는 한 명당 4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설명.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땅을 뇌물로 받은 공무원

선착장·도로 들어서게 해주고 시세 10분의 1가격에 1000평 매입 20배 챙겨

선착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땅 주인으로부터 일부 토지를 뇌물로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어민들에게 각종 사업을 지원해주겠다고 제안,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선착장 예정지를 변경해 주는 대가로 인근 임야를 시세보다 싸게 사들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진도군청 공무원 박모(60·5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도로 개설을 대가로 박씨에게 토지를 싼 가격에 판 정모(57)씨와 각종 사업을 지원받을 명목으로 박씨의 전복을 대신 키워 준 전북양식업자 김모(60)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군청 수산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1월 해안가에 있는 정씨 소유의 땅에 도로를 개설해주고 해당 부지 2만3000㎡ 중 3300㎡(약 1000평)를 시세의 10분의 1 가격인 1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숨기기 위해 처형 이모(여·63)씨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씨는 이후 정씨 소유의 땅 인근을 ‘재해예방사업’ 사업지로 선정했고, 8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착장 및 진입도로

를 개설해줬다. 개발 전 해당 부지 가격은 3.3㎡당 1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1000만원을 주고 산 땅은 현재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선착장 등은 방치돼 있다.

박씨는 이밖에 2011년 2월 양식업자 김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구입해주고 양식을 부탁했으며, 김씨가 전복을 대신 양식해 4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공공시설물 개설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하면서 박씨 등의 범죄 사실을 밝혀냈으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LPG차량 대포차 유통

매매업체 대표 구속

전남지방경찰청은 15일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없는 LPG차량을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시킨 자동차매매상사 법인 대표 A(63)씨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인 아닌 경우 개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는 택시부활 차량 등 LPG차량 197대를 구입해 자신의 법인 명의로 등록한 뒤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대포차량을 구입해 운행해 온 실소유자들의 체납된 세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7층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보 1억5천, 용 6억)

매가 14억 5천

수익성 상가

-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7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 광산구 월계동 1층상가 매매 (40평) (보 1억, 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 5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보 1천, 월60만) 임대완료 (용 5천) → 매가 1억 1천만
- 광양 광영동 상아P.T 12층(15평) 상가임집지역,아파트단지 (보2천, 월25만) → 매가 3천8백만
-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1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 월720만) → 매가 7억8천만

010-7384-7800

2층 상가 매매
<나주시 삼영동>

☆ 나주 혁신도시 10분 !!
(토 205평, 건135평)
영강고교/영강초교 정문 앞

1층 6칸(올임대)
2층 2칸(사무실,주택가능)

(보2천, 용1억2천 - 월수익 200만)

매가 2억 9천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 상무지구 정면 오피 3층 (30평) 한국은행 앞 (보2천, 월70만) 임대완료 → 매가 1억 3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보5백, 월 45만 - 임대완료) → 매가 8천 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상무나이트옆 (용4천) (보5백, 월 42만) → 매가 7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옆 (용2천)(보3백, 월33만) → 매가 4천5백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전역1번출구 3분 (용2천)(보3백, 월32만) → 매가 3천6백만

010-6670-9800

평택 토지 전문

- ① 평택 신도시 고덕면 (528만평)
- ② 삼성전자 입점 (120만평)
- ③ 평택 미군기지 이전
- ④ 평택 항

☆ 토지 투자자 모집 (1억~10억)

☆ 토지개발 하실분 모집 (토지,공장부지,전원주택,근린주택)

010-6670-9800

법률경매

1. 북구 오룡동 (근린상가주택) (토 500평, 건 904평) 감정가 35억4천 → 35억4천 총론 58개, 광주 과학고등학교 인근, 1층 상가
2. 서구 농성동 (토86평,건263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 지하 (국약연습실) 1층(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 ☆ 농성역 부근, 서구 키지사 부근
3. 북구 각화동 (토 337평,건510평) 감정가 22억3천 → 최저가 15억6천 → 1층 (음식점및 영업소) 2층 (학원및사무실) 3층 (사무실 등)
4. 서구 치평동 (토 3평,건 90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10층 중 7층 (상무지구 변화가 위치) 유흥지점 운영자 추천
5. 북구 유동 (토240평,건 818평) 감정가 24억3천만 → 최저가 24억3천만 1층(점포) 2층~5층(사무실) 지하(주차장)

※ 외 다수 물건있음 (5천만~100억) (10억~100억)

경매교육

경매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

062-382-5500, 010-6832-9700